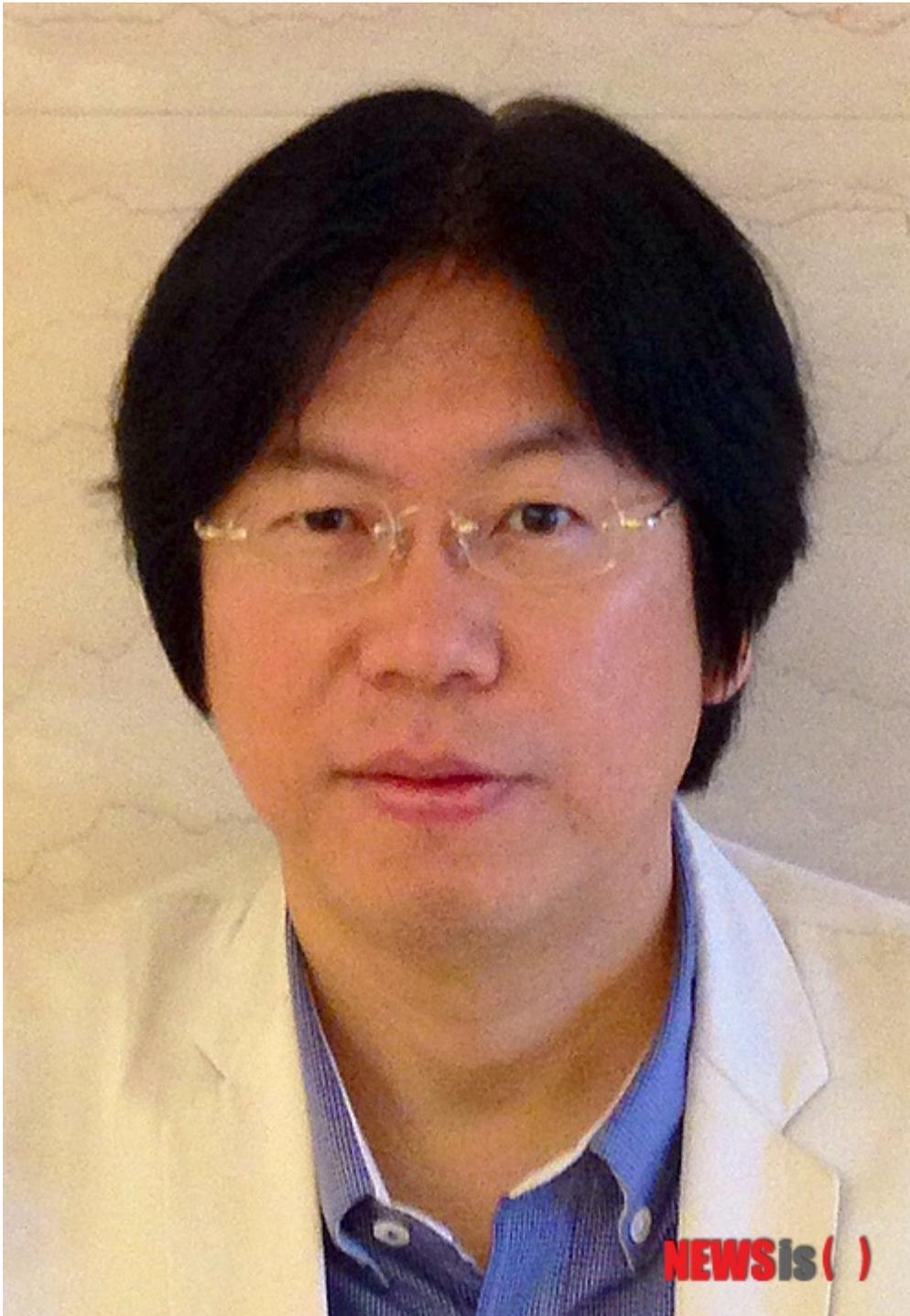


한세광 교수, 산학협력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



【포항=뉴스시스】 강진구 기자 = 포스텍(포항공과대·총장 김용민)은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

수의 의료용 나노소재 연구실 팀이 2013 산학협력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.

이 경진대회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해 산학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.

한 교수는 신풍제약과의 '히알루론산 기반 나노의약 제품 개발'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기술협력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.

한 교수는 생체고분자 히알루론산과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를 이용한 신개념 유착(adhesion, 癒着) 방지제 메디커튼®을 개발해 상업화에 성공했으며 히알루론산 유도체를 이용한 성형수술용 필러, 관절윤활제, 간질한 맞춤형 단백질 약물전달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해 상용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.

제넥신 및 신풍제약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자기조립 히알루론산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암 및 하지허혈증 세포치료제 개발에도 성공했고 상용화 연구를 위한 MOU도 체결한 바 있다.

최근에는 세계적 수준의 나노의약(nanomedicine) 개발을 위해 하버드 의과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전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.

한세광 교수 연구팀은 최근 3년간 히알루론산 유도체와 다양한 생체재료를 이용한 나노의약 개발연구와 관련 총 33편의 논문을 Nature Photonics 등 국제 저널에 게재했고 국내외에서 30여 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완료했다.

이러한 활발한 산학 공동연구와 상용화를 통해 바이오,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.

이 경진대회는 기술협력부문과 인력양성부문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.

dr.kang@newsis.com

<저작권자© '한국언론 뉴스허브' 뉴시스통신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.>

 인쇄하기

 취소